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마리루시	

**\* 오늘 2차 헌금 있습니다.**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봉사자 원혜미 엘리사벳

**세금보고 서류 신청 안내**

세금보고를 위해 '2025년 교무금 및 감사헌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서류 신청을 받습니다.

※ 서류 발급은 **지정된 기간에 일괄** 처리됩니다.

신청 기간: 2월 15일(주일) ~ 3월 1일(주일)

신청 방법: 미사 후 재무 테이블 방문 신청 또는 재정부과 이메일 접수: stfranciskctr.org@gmail.com

※ 서류 신청 시 **영문 성명 / 주소 / 연락처** 필요 ※

서류발급 기간: 3월 8일(주일) - 3월 15일(주일)

**공동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동안 매 주일 08시 50분부터 대성당에서 십자가의 길이 봉헌되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날 짜	주관 단체	인원
2/22(일)	울드레아	각 단체마다 봉사자 4명 : 십자가 1 주송1, 초2
3/1(일)	요셉회, 성모회	
3/8(일)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	
3/15(일)	청년회	
3/22(일)	사목회	
3/29(일)	꾸리아	

**2026년 봄학기 청년성서모임 그룹원 모집**

2026년 봄학기 청년성서모임과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가톨릭에서 세례 받은 청년

모집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신청마감: 2/22(주일) 11:59 PM

첫 모임: 3/8(주일) 12:00 PM, 산 다미아노홀

모임시간: 주일반, 평일반

(그룹원들끼리 요일/ 시간/ 장소 합의)

문의 : 714-809-9874

(대표봉사자 유선옥 베로니카, 카카오톡 ID: sunwouk)

**2026 미 동북부 ME: Family Bowling**

일시: 3/1(주일) 2:30PM \* 행사 후 간단한 식사제공

장소: Bowler City (201-343-3545)

85 Midtown Bridge Approach, Hackensack, NJ

참가비: \$50 부부 (18세 미만 자녀 무료)

신청: 646-322-3484 (장혜윤 크리스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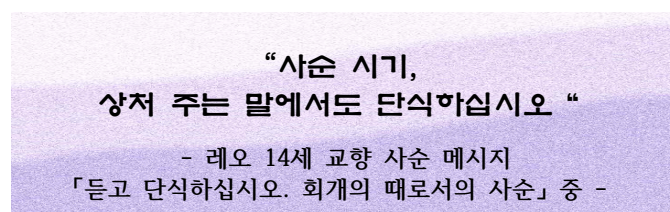
**2026년 사순특강 & 집중 판공성사(3월 15일)**

	시간/장소	담당
사순 특강	11:00-12:30 (산다미아노 홀)	김동권(사무엘) 신부 (뉴튼수도원 원장)
점심(김밥) 12:30PM - 1:00PM		
고해 성사	1:00PM-3:00PM (소성당 고해소)	김찬미(가비노) 신부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미주지사 /서울대교구)
		김영민(미카엘) 신부 (마운틴사이드 메디컬센터 원목)
		김주남(베드로) 신부 (전주 교구)

\* 판공성사표와 성사표 제출함이 코리안오피스 데스크에 마련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순시기 내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에 해당됩니다. 성사 보신 분들은 성사표 제출 부탁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영성특강 일정**

3/15(주일) 특강	Fr. 김동권 사무엘 (뉴튼 수도원 원장)
5/17(주일) 특강	Fr. 이용호 프란치스코 OFM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김천애 안드레아(1760-1801)



고향을 알 수 없는 김천애는 '전라도의 사도'로 유명한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의 집에서 일하던 종이였다. 그는 유 아우구스티노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뒤에는 고결한 마음으로 신자의 본분을 지켜 나갔고, 진리에 대한 믿음이 남달랐으며 교리를 실천하는 일에 성실하였다. 김천애는 1801년 신

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체포되어 전주 감영으로 압송되었다. 여러 차례 배교와 밀고를 강요당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굳게 증거하였다. 그리고 그해 7월경 동료들과 함께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그는 극심한 형벌 속에서도 "십계명을 버릴 수 없으며, 한 번 죽는 것인 만큼 죽음을 달게 받겠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 다음, 다시 전주로 압송되어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으니, 때는 1801년 8월 27일(또는 28일), 그의 나이 41세였다. 김천애가 형조에서 한 최후 진술은 다음과 같았다. "천주교는 큰 도리요 지극히 훌륭한 행위로, 여러 해 동안 깊이 믿어 이미 뺏속까지 사무쳐 있습니다. (저에게) 형벌과 죽음은 영예로운 일이니, 어찌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범한 죄를 돌이켜 보건대, 오직 빨리 죽기만을 원할 따름입니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70, 가해, 2026. 02. 22

###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라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r@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



김태훈 리무즈 신부 | 성바오로수도회

오늘 복음의 유혹 사화를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행복의 길인지 몸소 보여주십니다. 먼저 유혹자는 빵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기서 빵은 음식, 집, 돈, 직업, 건강 등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리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빵만으로”라는 말씀을 통해 삶을 위한 물질적 필요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필요가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유혹은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우리는 물리적 생명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참된 생명이신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악마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뒤, 밑으로 몸을 던져 보라고 유혹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니, 곧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어디 한번 보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징표를 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때론 응답을 받지 못할 때는 “그분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설부른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징표 없이도, 심지어 시련이 있다 해도 그분의 사랑을 굳게 믿는 것이 참된 자녀의 길임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마태 27,40)라고 유혹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침묵하시며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데 머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자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합니다. 악마는 무척 영리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하느님 나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힘과 지배라는 세상과 사탄의 방식이 아니라, 섬김과 존중이라는 하느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고히 하십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행해도 그 과정이 선하지

않으면 참으로 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느님의 방식으로만 사람들을 얻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유혹은 우리가 모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유혹까지도 똑같이 받으신 그분은, 우리가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사순 시기를 살아가는 이 특별한 때에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갑시다.



### 그림 예술

이마 위의 재 | 사람이 흙에서 났고, 저도 흙에서 났는데, 흙으로부터의 흔적이 저의 어디에 남아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죽으면 흙이나 재가 되어,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해 보진 않았습시다. 타고 남은 재로써도 천둥같은 메아리를 지어내던 날, 살면서 여태껏 이뤄 보지 못했던 자존과 겸손의 균형이 이마 위에 얹힌 재의 무게로 비로소 균형을 잡습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 출처: <서울주보>, 제2601호, 2026년 2월 22일(가해)